



(주)데이앤데이 김원복 초대 대표이사

현장 실무 두루 거친 '준비된 CEO'

올해부터 조선히텔베이커리사업부는 엄마 품이나 다름없던 (주)조선히텔에서 독립해 (주)데이앤데이' 로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김원복 대표이사는 세상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떤 (주)데이앤데이의 수장을 맡아 최고의 베이커리 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앞으로 딱 5년 동안은 주저 없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각오를 활활 불태우고 있다. 글 김미선 기자 · 사진 주현진 · 장소 협찬 (주)대성스호텔 '트레비 라운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김원복 대표는 얼굴에 늘 웃음을 달고 살아 언제부턴가 입가에 '미소 주름'이 생겼다. 그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소박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요즘 자기도 모르는 새 살뚱 달라졌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때때로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새해 첫 아침을 알리는 새벽닭의 힘찬 소리와 함께 (주)조선호텔에서 분리 독립한 (주)데이앤데이의 김원복 신임 대표이사, 그의 어깨가 요즘 전과 다른 책임감으로 무겁다.

새로운 법인 (주)데이앤데이의 새로운 수장

(주)조선호텔은 2005년 1월 1일자로 베이커리사업부를 법인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지금까지 베이커리사업부는 그룹 속에서 덩치 큰 하나의 조직에 불과했지만 지금부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몸통'을 이루게 된 것이다. 외식사업부에 속해있던 베이커리가 사업부로 독립해 나오던 지난 2000년 이미 수장의 자리에 올라 지금껏 꼭 그 자리를 지켜왔던 김원복 대표지만, 모그룹의 따뜻한 품속에 있던 그 때와 완전히 떨어져 나와 '딴살림'을 차린 회사의 대표이사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내가 잘해야 내 식구들이 고생을 덜 하죠. 우리 직원들과 우리 고객 모두를 지금까지보다 두 배는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길만 걷겠습니다.”

김 대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업계 3위의 업체를 한 어깨에 짊어진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짙게 묻어난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그는 절대 조바심내거나 서두르지 않으려 다짐 또 다짐한다. ‘무슨 일든 기본에 충실하면 열매는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그의 생활철학이 지금처럼 유용하게 쓰인 적도 또 없었다.

그가 (주)데이앤데이의 대표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직 개편이다. 우선 CEO를 중심으로 ‘관리, 생산·연구개발, 영업’ 3분야로 조직을 나누고 각 분야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를 각각 선정했다. 해당 조직을 맡은 책임자에게는 충분한 자율권을 인정해주고 전문성을 살려주되 그만큼의 책임도 똑같이 지도록 한다. 한 가지 재미나는 사실은 CEO인 그가 생산·연구개발 쪽 책임자로 겸임을 선언했다는 것. 사실 그는 사니중앙연구소, 고려당 제품개발책임자를 거쳐 CEO의 자리에 오른 주인공으로 업계에서는 박식하고 경험 많기로 알아주는 ‘제품 개발

자’ 출신이다. 김원복 대표 자신 또한 기술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공공연히 표현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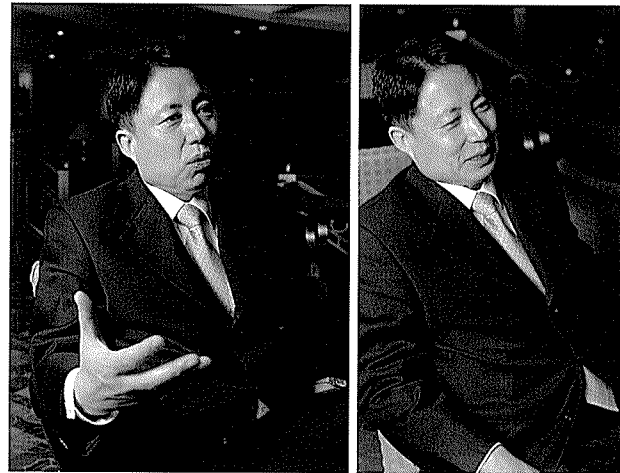
“생산·연구개발이야 말로 제품이 곧 생명인 베이커리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를 책임진 CEO가 맡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는 연구, 개발, 영업, 기획, 마케팅 등을 두루 거치는 등 애당초 베이커리 업계에서만 현장과 실무로 잔뼈가 굵은 준비된 지도자다.

종합식품회사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린다

(주)데이앤데이를 꼭 베이커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차근차근 토대를 밟아 종합식품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그가 마련한 청사진이다. 독자회사가 되면서 좋아진 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몇 배는 더 빨라졌다는 것. 일단 독자회사로서 자신감이 불기 시작하면 베이커리 카페나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등 수익 사업에 과감하고 빠르게 투자할 생각이다. 이마트와 더불어 처음 진출하게 된 중국 시장도 2010년이 되면 점포가 무려 50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 (주)데이앤데이는 김원복 대표를 만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김원복 대표는 그의 삶에 (주)데이앤데이가 있어 살맛난다. ‘시너지(Synergy)’는 (주)데이앤데이와 김원복 대표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임에 틀림없다. ”



때마침 지난 해 4월에 준공한 천안공장은 그의 이상을 펼치는데 한 몫 단단히 해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에 식약청으로부터 HACCP(유해요소중점관리)를 획득만 하면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각지로 (주)데이앤데이의 이름표를 단 냉동생지를 수출하는 것도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니다.

“호텔에서 물려받은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주)데이앤데이는 김원복 대표를 만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김원복 대표는 그의 삶에 (주)데이앤데이가 있어 살맛난다. 두 개의 대상이 만났을 때 서로 홀로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시너지(Synergy)’는 (주)데이앤데이와 김원복 대표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